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사순절 제3주일 (십자가 경배 주일)

성 리디아 순교자

(제7조 † 조과 복음 7)

- * 조과에서 '찬양되시는 주여'는 부르지 않는다.
- * 대영광송 다음에 '십자가 경배 주일 의식'을 거행한다. (231)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 삼성송 대신에 ----- 230
- 사도경 : 히브리 4,14~5,6 -- 230, 봉독서 451
- 복음경 : 마르코 8,34~9,1 - 139
- 성모송 ----- 6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에
'십자가 경배 찬양송' --- 230

십자가, 생명의 나무

사 막을 횡단할 때는 나무 그늘에 앓아 잠시 쉬면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영적인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오아시스는 필요하다.

교회는 사순절 기간 중간에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는 십자가 경배 주일을 제정하여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로부터 힘을 얻어 거룩한 부활의 날에 도착할 때 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십자가 경배 주일이 제정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마라'(출애굽기 15,23)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모세가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나무 가지를 샘에 던지자 물이 단물로 변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는 금식의 날들을 달콤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를 악의 유혹에서 보호하시고 남은 사순절 기간을 순결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어 당신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는 부활을 예고합니다

† 암브로시オス 조성암 한국 대주교

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는 신자들이 십자가에 경배하고, 힘을 얻어서 부활절 까지 영적 투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십자가를 들어 올립니다.

거룩한 십자가는 사탄과 그의 뒷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신자들의 삶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됩니다.

부활은 십자가 뒤에 오고 십자가를 전제로 하며, 십자가는 부활을 예고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신학과, 교회 생활에서의 십자가의 중요성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저술한 서신들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자랑이라는 점을 자주 강조합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갈라디아 6,14)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고린토 1,18)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로의 깊은 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한 자들을 죽이는 수치스럽고 끔찍한 살인 도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구원의 상징과 인간과 하느님과의 화해의 수단과 거룩함의 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악은 십자가 나무를 통해 하느님에게 고통과 죽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관용과 지극한 자선은, 반대로, 인간에게 사랑과 해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십자를 통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희생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성대주간의 성가에서 권고하듯,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삶의 쾌락을 추구한” 자신의 죄 많고 악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즉 우리 각자가 짊어진 개인적 십자가를 끈기와 인내로 견뎌 낼 수 있습니다. (마태오 16,24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고, 경험하고, 경배하기에 합당해지도록 올해도 십자가 경배주일과 성대주간에 거룩하고 존귀한 십자가에 경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부활을 고대하고 희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피파니오스 테오도로볼로스 수도대사제 (1930-1989)

QA



신부님,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나쁘게 변해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몰락해 가는 현상은 사람들을 겁먹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그에게 피신하는 자는 복되다.”(시편 34:8)

시리아 왕이 엘리사 예언자를 붙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예언자는 자신의 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종은 자기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언자에게, “선생님, 큰일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두려워 말아라. 우리 편이 저편보다 많다”하고 대답하며, 하느님께 그 종의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종의 눈을 뜨게 해 주시자, 그는 불말을 탄 기마부대와 불병거부대가 엘리사를 둘러 싸고 온 산에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은 곧 만족해하면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군인들은 예언자와 종을 붙잡

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늘의 군대가 예언자를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8~23 참조)

이런 기적이 그때(기원전 9세기)에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또한 그 옛날 예언자의 시대나 사도들과 교부들이 살았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자, 사도, 교부들처럼 하느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히브리 13,8). 우리의 생명과 삶은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우리의 온 생명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 맡깁시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수,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3월 30일 (수) 오전 9시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4월 1일 (금) 오후 6시
성모기립찬양 (4 스타시스)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온라인 프로그램 안내

유튜브 (한국 정교회 채널)

매 주일	성찬예배 중계
매주 월요일	성서공부 업로드
검색어	'orthodox korea' '한국 정교회'
줌(zoom) 단체 모임	
매 주일 오후 2시	신데즈모스, 예비 신자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장년회, 성인 신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주일 학교

성인의 가르침

성 바르사누피오스
수도자

소식

■ 부산 성모 희보 성당 축일 예배

지난 주일(3월 20일)에, 암브로시オス 대주교께서는 부산에서 3월 25일 성모희보 축일을 기념하는 성찬예배를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와 요한 박인곤 보제와 집전하셨습니다. 대주교께서는 설교말씀에서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사다리’와 ‘다리’가 되어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선을 베풀자고 하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 전쟁을 즉각 멈추십시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께서는 대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 말씀에서, 이미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피난길을 떠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호소가 담긴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포를 멈추십시오! 전쟁을 즉각 멈추십시오! 광기는 여태까지 목격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더 많은 피를 견뎌야겠습니까? 지구의 품안에 얼마나 더 많은 시신이 묻혀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지구를 적셔야겠습니까?” 또한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성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만약 어느 한 곳에 사랑이 없으면, 그곳에는 하느님의 은총과 보호가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형제라 여겨지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다음 생애에서 하느님을 뵙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전쟁이 빨리 중단되길 기도하면서 전쟁 난민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력합시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믿음에 대해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세례 때에 거룩한 교회로부터 받은 것과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